

# 광주·전남 가구자산 전국 평균보다 1억 적다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광주 3억4387만원·전남 3억196만원... 17개 시도 중 11·15위

가구 빚 광주 5003만원, 전남 4765만원...전남 소득 최하위권

제조업 등 기업 기반이 빈약한 광주-전남이 평균 가구자산도 전국 평균보다 1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광주 3억4387만원·전남 3억196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평균 자산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11번째, 15번째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억3191만원으로, 광주는 8804만원 적고 전남은 1억2995만원이나 뒤쳐졌다. 평균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6억4240원)로, 광주·전남의 2배 정도였다. 세종(5억8784만원), 제주(5억459만원), 경기(4억7546만원), 대구(4억1818만원) 등이 평균 자산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광주·전남 평균 자산 순위는 해마다 하

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2017년 평균 자산은 광주 2억9200만원·전남 2억6586만원으로 나란히 14위, 15위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광주 10위(3억2447만원)·전남 16위(2억8837만원)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광주 2억2716만원·전남 1억8382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전남지역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별 연 가구소득을 보면 광주 5796만원·전남 4981만원으로 각각 5위, 16위를 기록했다.

평균 5828만원과 비교하면 광주는 32만원 차이가 나고, 전남은 한 해 847만원을 덜 버는 셈이다.

전남 평균 가구소득은 2016년 4272만원(13위)에서 이듬해 4777만원으로 쪼



자리에 주저앉았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된 사업소득 부문에서는 전남지역이 지난 2017년 1490만원에서 지난해 1458만원으로 오히려 2.1%(32만원) 떨어졌다.

광주지역 가구소득은 2016년 5위(4948만원)→2017년 6위(5409만원)→2018년 5위(5796만원)으로 매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전남지역 평균 부채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 늘어났지만 광주는 4.0%(196만원), 전남은 5.3%(241만원) 증가했다.

전남 평균 부채는 476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고, 광주(5003만원)는 4번째로 적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금도 전남이 281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광주(3108만원)는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평균 자산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 14.5%·전남 15.7%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95.68 (+27.53) ↓ 금리(국고채 3년) 1.36 (-0.01)
- ↑ 코스닥 650.58 (+6.14) ↓ 환율(USD) 1166.20 (-6.10)

## 고용안정·근로시간 만족...노동강도·임금은 불만 월 평균임금 272만원...전국 평균보다 68만원 ↓

### 전남 일반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 ■전남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만족도

전남지역 일반산업단지외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월 68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816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인지 이들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노동강도·임금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3.00
임금수준	2.61
노동시간	2.80
노동강도	2.66
직무내용	2.89
동료와 인간관계	3.18
기업 인사관리	2.75
고충처리제도	2.59
노동자 안전보호	2.88
출퇴근 교통	2.80
주변 편의시설	2.41
전반적인 직장생활	2.81

\*매우 만족=4점, 약간 만족=3점, 약간 불만=2점, 매우 불만=1점 / 보통=2.5점

17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0~11월 두 달간 전남지역 산업·농공단지 노동자 272명을 대상으로 고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2.81점(4점 척도)을 얻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동료와 인간관계(3.18)·고용안정(3.00) 부문은 만족도가 높았고, 직무(2.89)·안전(2.88)·노동시간(2.80)·인사관리(2.75)는 보통 수준을 보였다. 반면, 노동강도(2.66)·임금수준(2.61)·고충처리제도(2.59)·주변편의시설(2.4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임금은 월 평균 272만원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월 290만원으로, 농공단지 노동자들(250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월 급여가 34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남 산단·농공단지 노동자들은 각각 월 50만원, 90만원 적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인 노동자가 39.3%, 300만~400만원과 200만원 이하가 각각 18.8%, 400만원 이상은

12.1%로 조사됐다.

노동시간은 3명 중 1명(32.4%)이 주당 평균 40시간이라고 응답했고, 27.9%는 40~52시간, 9.2%는 52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답했다. 28.3%는 4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해 일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 직장 근무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48.5%가 '3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5년 이상 근무자는 27.6%에 그쳐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82.7%)와 30대(52.5%) 젊은층, 월 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66.7%)와 200만~300만원(53.3%) 저소득층,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3.4%) 노동자들이 일자리 자주 옮겼다. /박정욱 기자 jwpark@

### '12월 자랑스러운 중기인'

### 목포 대창식품 정현택 대표

목포에 소재한 ㈜대창식품의 정현택(사진) 대표이사가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정 대표는 업계 최초로 '돌김'을 상표화해 그 우수성을 전국 각지에 알린 기업인이다. 2016년 2000만 달러 수출탑, 2018년 3000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이달의 무역인상'을 수상했다.

1979년 7월 설립된 대창식품은 구이·마른·조미김 제조업체로, 해외시장 동향과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김을 연구개발해 김치·녹차·와사비 등을 첨가한 다양한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355억원 달성했으며, 근로자 수는 98명이다. 지난 5월 열린 '중국수출입상품 교역회'에서 전남지역 참가기업 중 가장 많은 132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MOU)을 맺는 성과를 냈다. 또 여성·장애인·정년은 물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 여성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철 대표 식품인 돌김을 소개하는 모습. 17일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한 고객이 겨울철 대표 식재료로 꼽히는 황태포를 살펴보고 있다. 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황태 특집展'을 열고 황태포 100g을 6000~8800원에 판매한다.

### 서명없는 카드 부정사용 거래 가맹점 책임 안진다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거래 가맹점은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

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명이 없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 가맹점은 통상 50%에 달하는 부정 사용 책임금을 부담했다.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고지 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가맹점주가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진다.

카드사의 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조항은 삭제된다. 또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입류'가 제외된다. 카드결제 대금 가입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성탄 전야 소상공인 제품 선물 어때요"

### 광주전남중기청, 24일 문화전당서 '크리스마스마켓 in 광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이 오는 24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여진다.

17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성탄 전야'인 24일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구름다리)에서 '가치샵이다, 크리스마스마켓 in 광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치샵이다' 행사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로 개최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

과 학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공예 제품, 먹거리 등 다양한 소상공인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플리마켓(벼룩시장) 점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도장을 받으면 선착순 100명에게 신년 일기장을 준다. 또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하면 기념품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방탄소년단, 송가인 등이 출연하는 '2019 KBS 가요대축제' 방청권도 받을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19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REMEMBER & HISTORY

- 1인 크리에이터, 인기·수익 양 날개로 비상
- 나만의 콘텐츠야 떠난다
- 크리에이터 꿈꾼다면 눈과 귀를 열어라

기획: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성과 공전의 예술도시 독일 드레스덴, 클럽, 문화현장, 문화감성이 발효되는 공간 담양해동문화예술촌

2019 문화계 결산

- 문학: 조정래, 송순, 동주문학상 등 의미있는 수상
- 미술: 소통 전시로 각광받은 디자인비엔날레
- 공연: 세계스포츠 축제 무대로 통성했던 여름 공연

강재운 시인의 남도 성모 토속음악사, 여수 남도의 별미 '갑오징어 돌미나리 초무침'

### 예향 초대석

우리 감성 무르익은 소리꾼 장사익

"노래에 인생 스며들면 깊은 울림"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자유를 향해 질주한 시와 생 서울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 전시 화제

ACC '공작인: 현대조각과 공예 사이'전

유연준의 도시건축, 모닥불, 건축 빅뱅 불 지폈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바우하우스의 부처' 클레, 재밌는 예술교육 틀 다졌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영암 한국트롯가요센터에서 만난 하준화, K리그 2019 우승 이끈 광주FC 감독 박진섭

### 승년 기획

안녕 2019, 해넘이 해맞이 명소

역사와 예술의 불꽃 보성 빛 여행

충무공 태백산맥개척의민간영웅 참여태와 독자